고양시 하천 친구들

곤충편 (3)

" 고양시하천에는 어떤 곤충이 살고 있을까요 ?? "

꼬마남생이 무당벌레

크기가 3~4mm로 매우작습니다.
딱지날개는 황적색이고, 가슴과 딱지날개의 무늬가
다양하지만 대게 옅은 황적색의 검은 체크무늬가 있습니다.
나무껍질이나 낙엽 밑, 건물 틈에서 무리를 지어
겨울잠을 잡니다.

물자라

몸은 갈색 또는 황갈색을 띠며
등면은 납작하고 타원형입니다.
머리는 폭이 넓은 삼각형 모양이며 앞으로 돌출합니다.
하천이나 저수지의 고요한 물속에 서식하고,
작은 어류나 올챙이등의 체액을 빨아먹습니다.

배짧은 꽃등에

몸길이는 12mm 내외입니다. 머리 중앙에 흑색 세로줄이 뚜렷하나 배는 흑색으로 제 2마디에는 1쌍의 황갈색을 띤 삼각형무늬가 있으며 수컷에서 특히 뚜렷합니다.
주로 꽃이 핀 들판이나 숲에서 많이 서식합니다.

호리꽃등에

몸은 전체적으로 오렌지색을 띠며 작고 가늡니다.
얼굴은 연한 황색입니다.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곤충으로, 어른벌레는 꽃에서 꿀을 빨아먹기도 하지만
진딧물의 애벌레와 어른벌레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카멜레온 줄풍뎅이

몸길이 16mm내외로 우리나라에서 여름철 녹색이 나는 풍뎅이류 중 가장 흔한 종입니다. 그러나 몸의 색은 차이가 대단히 심하여 등 쪽이 완전히 녹색인 개체로부터 흑남색까지 있고, 거의 갈색에 가까운 개체도 있습니다. 딱지날개는 갈색에 더 많이 가깝습니다. 거의 20종에 가까운 줄풍뎅이류가 있는데 대부분 특징이 비슷하여 정확한 구별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모니터링 참여

고양자연생태연구회
더불어성사천
어린이식물연구회
에코코리아
하천생태동아리

- 2019년 고양시하천네트워크 단체에서 모니터링한 자료입니다 -

고양하천네트워크